

女농구 올림픽 본선행... 상대는 '첩첩산중'

한국 "1승과 8강 진출 목표" 본선 12팀 확정... 강팀 준비 주전 의존도 낮춰야 희망있어



한국 여자농구가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에 복귀했다. 사진은 도쿄올림픽 티켓을 받아온 한국 여자농구 선수단. 연합뉴스

올해 열리는 도쿄 올림픽 여자농구에 출전할 12개 나라가 모두 정해졌다. 10일(한국시간) 세르비아와 프랑스, 벨기에에서 끝난 최종예선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 스페인, 호주, 벨기에, 푸에르토리코, 세르비아, 캐나다, 프랑스, 나이지리아가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에 앞서 개최국 일본과 2018년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우승팀 미국이 올림픽 본선에 선착해 있었다. 이문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끝난 최종예선 B조에서 3위를 차지,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도쿄 올림픽 여자농구 본선 조 추첨은 3월 21일에 진행된다. 본선에 오른 12개 나라가 3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벌이며 각 조 상위 2개국과 조 3위 국가 중 조별 리그 성적이 좋은 2개 나라가 8강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별 리그에서 한 번만 이겨도 경우에 따라 8강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본선에 오른 나라들의 FIBA 랭킹을 보면 미국(1위), 호주(2위), 스페인(3위), 캐나다(4위), 프랑스

(5위)가 진출했고 세르비아(7위), 중국(8위), 벨기에(9위), 일본(10위)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세 자리는 나이지리아(17위), 한국(19위), 푸에르토리코(23위)로 채워졌다.

본선 진출 12개 나라 중 세계 랭킹 기준으로 11번째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이문규 감독은 10일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된 뒤 "우선 1승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본선에서 승리를 따내고 8강까지도 노려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조별 리그에서 1승만 해도 8강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해볼 만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나이지리아나 푸에르토리코는 세계 랭킹으로 볼 때 우리와 같은 조가 되기는 어렵다.

이문규 감독은 "높이에 열세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훈련 기간을 통해 수비 전술을 가다듬어야 본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공격에서는 우리 대표팀의 주 무기인 3점 슈트를 어느 상황에서든 던질 수 있도록 움직임도 더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최종예선에서 영국과

경기에 주전 5명 가운데 3명이 40분을 모두 소화했다. 또 나머지 2명도 35분 이상 뛰는 등 주전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7월 도쿄 올림픽이 채 반년도 남지 않은 만큼 갑자기 국가대표 선수층을 두껍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엔트리 12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코트를 다시 밟게 된 한국 여자농구가 2008년 대회처럼 8강까지 오를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크다.



매길로이, 4년 5개월 만에 골프 세계 1위

캠카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아 임성재 33위·안병훈 48위 유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브룩스 캠퍼(미국)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섰다.

매길로이는 10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7차례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매길로이가 정상 자리를 탈환한 것은 2015년 9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지난주까지 1위를 달렸던 캠카는 매길로이에게 밀려 2위로 내려갔다. 캠카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동안 1위를 지켰지만, 지난해 9월 무릎

부상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린 탓에 자리를 빼앗겼다.

3~5위는 온 램(스페인), 저스틴 토머스(미국), 더스틴 존슨(미국) 순으로 변함없다.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는 타이거 우즈(미국)와 자리를 맞바꿔 8위에서 6위로 도약했다.

7위는 웨브 심프슨(미국)이 차지했고, 잰디 쇼플리(미국)와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도 각각 9위, 10위를 유지했다.

임성재(22)는 33위, 안병훈(29)은 48위로 랭킹이 변하지 않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버치 프로암에서 우승한 닉 테일러(캐나다)는 229위에서 101위로 뛰어올랐다.

LPGA 대회 강타한 '신종 코로나'

아시아 스윙 3개 대회 취소 호주오픈 이후 4주 공백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아시아 스윙 대회가 모두 무산됐다.

LPGA투어는 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혼다 LPGA 타이랜드와 싱가포르에서 치를 계획이던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을 취소한다고 10일 밝혔다.

혼다 LPGA 타이랜드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태국 파타야의 삼 컨트리 클럽에서 나흘간 열릴 예정이었고,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은 27일부터 나흘 동안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발생

한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한국보다 더 많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최근 방문 자제 국가로 지정했다.

LPGA투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이벤트는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아시아 현지 국가들의 권고를 받았다"면서 "선수들과 팬, 그리고 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LPGA투어는 3월 5일부터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LPGA 블루베어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과 3월에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 스윙 3개 대회는 모두 무산됐다.

LPGA투어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치르는 호주여자오픈 이후 3월 20일 개막하는 파운더스컵까지 4주 동안 공백기를 갖게 됐다.

펜싱 남녀 에페 대표팀, 나란히 '金빛 낭보'

국제펜싱연맹 월드컵 단체전

한국 펜싱 남녀 에페 대표팀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상영(울산광역시청), 안성호(부산광역시청), 권재선(청주대), 송재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에페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월드컵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2019-2020시즌 앞서 스위스 베른 대회 단체전 5위, 독일 하이덴하임 대회 17위에 자리했던 한국 남자 에페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선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를 연파하고 상대 맨 위에 섰다.

이탈리아와의 결승에서는 39-24 완승을 거뒀다. 20-20으로 맞선 8번째 경기에서 송재호가 가브리엘레 치미니에게 4점을 빼앗아내며 리드를 잡았고, 마지막 주자로 나선 박상영이 다비데 디 베롤리를 4점으로 틀어막고 홀로 15점을 책임져 '에이스' 임무를 완수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에서도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최인정(계룡시청), 이해인(강원도청), 송세라(부산광역시청)가 출전한 한국이 결승에서 중국을 39-34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 에페 대표팀도 이번 시즌 첫 월드컵 단체전 메달권 진입이다.



우승을 차지한 한국 남자 에페 대표팀(사진 위) 왼쪽부터 박상영, 안성호, 권재선, 송재호, 여자 에페 대표팀(사진 아래) 왼쪽부터 최인정, 강영미, 송세라, 이해인.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8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GN10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CGV, 광양사거리, 화북